

의정부시, 제26회 韓日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로 양시간 돈독한 우의 다져



의정부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의정부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제26회 한일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를 개최했다.

의정부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의정부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제26회 한일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를 개최했다. 의정부시와 일본 니가타현 시바다시는 지난 89년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체육교류는 81년부터 실시해 현재 26회째를 맞

고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양시로서로 방문해 체육교류를 하고 있으나, 체육교류와 홀스데이 등으로 양시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해왔다. 일본 시바다시는 109명(임원27, 선수82)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해 농구 시범경기와 육상, 축구, 탁구,

유도, 검도 등의 교환경기로 이루어졌다. 또한 시바다시 방문단은 남산타워와 삼성홀러스, 통일전망대, 자유의대리, 입진각 등 주요 관광지와 대형 마트를 소풍하며 하루를 즐거워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올해 대풍을 기원합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전국 첫 벼베기 시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올해 첫 벼베기 시연에서 풍년을 기원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올해 첫 벼베기 시연에서 풍년을 기원했다. 김 지사는 8월7일 경기도 이천 문밭을 김홍원씨의 논에서 직접 낫과 콤바인을 이용해 벼베기를 하며

대풍을 빌었다. 또 옆 논에서 이어진 2모작 모내기까지 직접 시연을 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논지 벼베기를 한 문밭은 1년에 두 번 수

확을 하는 2모작 논지로, 인근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의 열병합 발전소에서 나오는 물로 농사를 지었다. 이날 김 지사는 “전국 첫 벼베기를 하신 농민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벼베기와 모내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농기술도 대단하다”며 “하이닉스의 냉각수를 이용하고, 매뚜기가 뛰어나갈 정도로 확실한 친환경 농법이니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팔당 식수와 최고 품질의 쌀까지 공급해 주시는 이천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쌀인 이천쌀이 올해도 대풍을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이천 농협이 미국종양처리장을 방문, 도정 과정을 살펴보고 ‘입금님표 이천쌀’의 우수성을 확인했다. 한편 이날 벼베기에는 조병돈 이천시장, 이재혁, 이종률, 김기수, 권혁산 도의원을 비롯해 김덕영 농정국장, 박재근 농협경기지역본부장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한일우호도시친선교환경기 참가자 환송식

김문수 의정부시장은 7월8일 한일우호도시친선교환경기 참가자 환송식에 참석, 26회째 이어온 친선교환 경기가 지속 추진 되기를 바라며, 양시간에 우의가 돈독히 지기를 바라고 했다.

“여러분이 지금 역사를 쓰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 월례조회에서 공직자 사명감 강조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8월7일 도청에서 열린 8월 월례조회에서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며 “위대한 역사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 의해 쓰여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지사는 “지금 우리는 선진국의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으나, 없느냐의 기로에 있다”면서 “대학시절 개발에 대한 반대도 많이 했다. 후진국에서 자동차 공장이 성공할 수 없다고 배웠고, 목숨 걸고 반대했다. 중공업, 제철소, 고속도로 이 모든 것도 반대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이때 만들어 놓은 산업들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다. 북은 지금 굶어 죽

고,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다. 북에 비해 우리는 성공했다”면서 “우리가 이처럼 잘 살게 된 데는 공직자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 이 나라가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사는 “경기도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너무 많다. 연천은 무려 98%라며 공장을 못 짓게 하고 학교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규제의 문제점을 밝히면서 “지금 수도권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것도 경기도라며 기록상으로 나라 경쟁력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것도 수치상으로 나와 있다”고 경기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히틀러도 학교를 막진 않았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대학 규제정책 비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8월2일 안성 두원공과대학에서 열린 제5대 이해구 대학규제 취임식에 참석, 수도권정비계획법 기운대 하나인 대학 이전 및 신설과 증설을 규제하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학의 신·증설과 이전을 막는 수도권 규제의 부당함을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8월2일 안성 두원공과대학에서 열린 제5대 이해구 대학규제 취임식에 참석, 수도권정비계획법 기운대 하나인 대학 이전 및 신설과 증설을 규제하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히틀러도, 조선총독부도, 진시황제도 특정 지역에 학교를 못 짓게 하는 악법을 펴진 않았다”며 “인재 배출을 막는 이런

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내실 있는 두원공대가 수도권 규제의 악법에서도 이해구 선배님의 취임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지사로서 경기도의 교육여건 발전을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 중국, 베트남 등에서 유학 오는 대학으로 만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 민자역사 곧 사업재개

대형할인점·주차장 건립 계획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신세계 의정부역사(주) 신청한 민자역사 건축허가에 대해 의정부시가 인근 재래시장 상인의 반발 등을 이유로 반려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도 행정심판위는 “재래시장의 보호는 관계법규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며, 경쟁을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보호되기도 않는다”면서 “이같은 이유로 사인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도 행정심판위는 또 의정부시가 건축 반대 이유로 제시한 교통혼잡 문제에 대해 “사업자가 교통량이 많은 주말에 경기도 교통전문위원들과 함께 현장을 조사한 결과 타당성을 검증받았다”면서 “교통문제는 해소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이러 “재래시장 육성을 통한 시장질서의 안정과 주민통합의 공익이 민자역사 건립에 따른 공익보다 결코 상위의 가치라 할 수 없다”면서 “의정부가 건축허가 법리를 오해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세계 의정부역사(주)는 지난해 6월 민자역사 건축허가신청을 냈으나 의정부가 같은 해 11월 시의회의 제정요구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 역행 주민간 불신 갈등 고조 교통해소대책 미흡 등을 들어 반려해 도에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신세계 의정부역사(주)가 지난 2002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 민자역사는 건축면적 8만 1000㎡(지하층 지상층) 규모로 대형할인점과 주차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도서관에서 쑥쑥 자라요!”

의정부시정보도서관, 여름독서교실 운영

의정부시 정보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북돋아 주고자 여름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관내 초등학교 2학년 학생 20명과 4학년 학생 30명 등 50여명은 우리는 도서관에서 쑥쑥 자라요! 주제로 도서관 이용법과 지도로 떠나는 세계여행, 식물관찰일기, 전자책이 좋아요, 영화 읽기, 독서퀴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대전시 유성구에 소재 하

폐박물관 견학은 시대 및 종류별로 전시된 우리나라의 화폐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다. 여름독서교실에 참가한 인범석(서초교 2학년)학생은 “집에서 TV만 보다가 정보도서관에 와서 친구들과 같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법과 말로만 들던 전자책, 우리나라의 화폐 등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며 기뻐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방학기간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많이 개발해 즐겁고 유익한 방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시 정보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북돋아 주고자 여름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여름 ‘토요문화가 산책’

의정부문화원, 가족영화 상영 등

의정부문화원은 지난 7월8일부터 9월2일까지 매주 토요일 문화원 야외무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장르의 공연과 가족영화 상영 등 토요문화가 산책을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크다. 8월 주요 프로그램은 5일, 가족영화 로봇 상영과 전통무예 택견시연, 아름다운 우리 전통문화를 세계에 수놓은 현대적 감각인 시애틀아트예술단의 전통 가무악이 공연되었으며 12일에는 아름다운 선율의 크로마하프 연주와 로스아미고스클래식 기타합주단의 낭만과 열정의 스페니쉬 기타선율이 선을 보인다. 19일에는 의정부문화원 한국 무용반과 사물놀이반 회원들이 만들어내는 신명난 공연과 송과 살바악단의 은빛 선율이 흐르는 아름다운 실버 음악회가 열리며, 26일에는 시원한 여름 이광식 아카데미가 선보이는 라틴댄스의 세계와 은근치신(溫敬知新)의 참뜻을 이어가고 있는 의정부시무용단의 하나되는 남북 한의 소리춤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다음달 2일에는 마미다운 음악을 사랑하는 20여명의 교사들이 모여 소년소녀가장들이 자선공연인 플러스사랑과 대한민국 섹스폰의 자존심 김원용의 감미로운 재즈여행이 시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의정부문화원 원용복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토요문화가 산책을 특색 있게 여러 장르의 공연을 물론 가족영화 상영 등 다채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민락동에 살고있는 김예슬(여, 36세)씨는 “지난달 29일 문화원에서 열린 대중음악의 향연 공연을 보고 재미있었다”며 “의정부예술의전당에 가서 공연을 보려고 해도 버스도 가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우리지역에서도 이런 좋은 공연을 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뜻깊은 공연을 계속 해 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노인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 전개

의정부시 청소년 자원봉사연합회

의정부시 청소년 자원봉사연합회는 지난 3일 회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남양주시 수동면 소재 에덴노인요양센터에서 어르신 목욕봉사활동을 펼쳤다.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자원봉사연합회는 오갈 데 없는 노인 1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남양주시 수동면 소재 에덴노인요양센터에서 어르신 목욕봉사와 시설정소, 식사보조, 어르신 말벗, 안마 등 봉사활동을 했다. 청소년자원봉사연합회는 봉사활동 1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의 손발이 필요한 시설을 찾아가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의정부고등학교 2학년 배범복 동아리회 임명진 학생은 “노인요양센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같이 즐겁게 하루를 보내 기쁘고, 안마와 시설정소를 맡김이 해주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학교에서 봉사활동 시간에도 어떻게 살고있는 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시 청소년 자원봉사연합회는 지난 3일 회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남양주시 수동면 소재 에덴노인요양센터에서 어르신 목욕봉사활동을 펼쳤다.

제19회 의정부시 문화상 후보자 모집

의정부시, 제19회 의정부시문화상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의정부시는 제19회 의정부시문화상 3개부문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88년부터 의정부시 문화상을 시상하기 시작해 금년이 19번째로 지난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1개월간 후보자를 접수 하며, 학술 교육부문과 문화 체육 부문, 지역발전부문 등 3개 분야에 각 1명씩 선정하게 된다. 각 부문별 후보자를 접수 받아 9월중 심의위원회를 개최, 시민의날 기념식에서 시상하게 된다. 후보자 신청자격은 5년 이상 의정부시에 거주한 자로서 해당부문에 5년 이상 현저히 기여한자와 본적이 의정부시인자로서 시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지역발전에 기여 또는 헌신 봉사한 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어린이도서관과 정보과학도서관 신축

의정부시 호원동과 신곡동에 내년3월까지 준공

의정부시는 지역안배 차원에서 동·서 지역에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특화 도서관 건립으로 문화복지 및 평생교육 시대의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체험과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어린이도서관과 정보과학도서관을 올해말과 내년3월 준공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도서관은 호원동 산14-23번지에 작년 12월 착공해 올해 12월 준공예정이며, 지하1층과 지상3층의 규모로 2천185㎡면적으로 주요시설로는 유아 열람실과 열람실, 자료실, 어린이영화관 등 최신형 시설로 구성된다. 어린이전문도서관으로 어린이들의 생각과 행동이 자유로운 독서환경으로 조성되며, 전자책 구비 등 정보화 시대에 맞게 도서관이 개관될 예정이다. 순조롭게 공사를 시행해 현재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추동정보

과학도서관은 신곡동 124-1번지에 2004년 착공해 내년 3월 준공되며, 지하1층과 지상3층 규모로 6천951㎡의 연면적으로 주요시설로는 열람실과 문헌 디지털자료실, 과학체험실 등 최신 시설로 설치된다. 과학특화도서관으로 조성되는 정보과학도서관은 경기북부의 취약한 과학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24%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어린이도서관과 정보과학도서관이 특화된 도서관으로 조성되면 의정부는 경기북부 대표도시로서 위상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는 동·서 지역에 어린이도서관과 정보과학도서관을 건립한다.